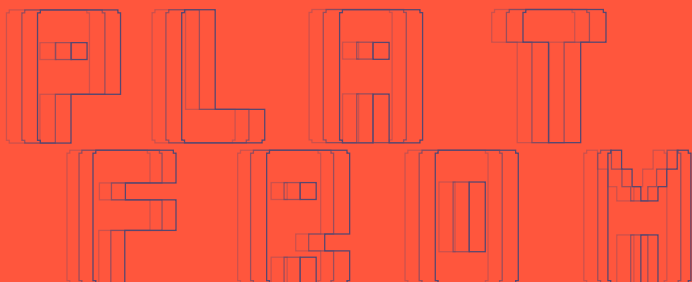


2013 PLATFORM ACCESS

4TH PREVIEW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2013. 03. 07 - 05. 26



2013 플랫폼 엑세스

인천아트플랫폼 4기 입주예술가 프리뷰전

2013. 03. 07 - 05. 26

2013 PLATFORM ACCESS

4TH PREVIEW EXHIBITION OF
THE INCHEON ART PLATFORM RESIDENT ARTISTS

2013. 03. 07 - 05. 26

OPENING

2013. 3. 7. 목. 오후 5시

DATE

2013. 3. 7. 목 - 2013. 5. 26. 일

■ 10:00 - 18:00(일 - 목요일)

■ 10:00 - 20:00(금, 토요일)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시간 30분 전까지 입장마감

VENUES

인천아트플랫폼 A동 크리스탈 큐브, B동 전시장 외

ARTISTS

시각예술부문 : 김기라 김세진 김원화 김주호 노기훈 리금홍 박광수 박혜민
백인태 옥인 콜렉티브 이수영 이주리 이해민선 정기훈 정지현 차지량 최성록
함경아 리앗 리브니(이스라엘) 실비아 빈클러 & 슈테판 커페르(오스트리아 & 독일)
앤지 아트마드자자(인도네시아) 올리비아 발렌타인(미국) 요르그 오베르그펠(독일)
인스턴트 커피(캐나다)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칠레) 줄리앙 쿠아네(프랑스)

공연예술부문 : 신승렬 신재훈 전광표 정진세 파리스 레가키스(그리스)

문학·비평·연구부문 : 김해진 이대범 임정자 엘리사 토소니(이탈리아) 두시원(중국)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 김수미 엠마 벨(영국) 이사이 가르비즈(영국)

Visual Arts

시각예술부문

- 08 김기라 KIM Kira
- 09 김세진 KIM Se-Jin
- 10 김원화 KIM Wonhwa
- 11 김주호 KIM Jooho
- 12 노기훈 Noh Gihun
- 13 리금홍 LEE Geumhong
- 14 박광수 PARK Gwangsoo
- 15 박혜민 PARK Hyemin
- 16 백인태 BAIK Intae
- 17 옥인 콜렉티브 Okin Collective
- 18 이수영 LEE Sooyoung
- 19 이주리 LEE Ju-ri
- 20 이해민선 LEEHAIMINNSUN
- 21 정기훈 JEONG Kihoon
- 22 정지현 JUNG Jihyun
- 23 차지량 CHA Ji-ryang
- 24 최성록 CHOI Sungrok
- 25 함경아 HAM Kyungah
- 26 리앗 리브니(이스라엘) Liat LIVNI(Israel)
- 27 실비아 빈클러 & 슈테판 커페르(오스트리아 & 독일)
Sylvia WINKLER & Stephan KÖPERL(Austria, Germany)
- 28 앤지 아트마드자자(인도네시아) Angie ATMADJAJA(Indonesia)
- 29 올리비아 발렌타인(미국) Olivia VALENTINE(USA)
- 30 요르그 오베르그펠(독일) Jörg OBERGFELL(Germany)
- 31 인스턴트 커피(캐나다) Instant Coffee(Canada)
- 32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칠레) Jorge CABIESES-VALDES(Chile)
- 33 줄리앙 쿠아네(프랑스) Julien COIGNET(France)

Performing Arts

공연예술부문

- 35 신승렬 SHIN Seungryul
- 36 신재훈 SHIN Jaehoon
- 37 전광표 JEON Kwangpyo
- 38 정진세 JEONG Jinse
- 39 파리스 레가키스(그리스) Paris LEGAKIS(Greece)

Literature, Criticism

문학·비평·연구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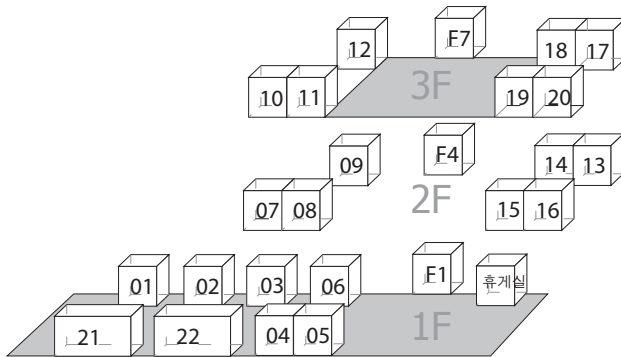
- 41 김해진 KIM Haejin
- 42 이대범 LEE Daebum
- 43 임정자 LIM Jeongja
- 44 엘리사 토소니(이탈리아) Elisa TOSONI(Italy)
- 45 두시원(중국) DU Xiyun(China)

Baengnyeong-do Peace Arts Residency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 47 김수미 KIM Soomi
- 48 엠마 벨(영국) Emma BELL(UK)
- 49 이샤이 가르비즈(영국) Yishay GARBASZ(UK)

Studio Map



2013 IAP Artist-in-Residency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E-1	김주호 KIM Jooho						김세진 KIM Se~Jin					
E-2	함경아 HAM Kyungah											
E-3	김기라 KIM Kira											
E-4	이주리 LEE Ju~ri											
E-5	이해민선 LEEHAIMINNSUN											
E-6	박해민 PARK Hyemin											
E-7	박광수 PARK Gwangsoo											
E-8	백인태 BAIK Intae											
E-9	정지현 JUNG Jihyun						김원화 KIM Wonhwa					
E-10	리금홍 LEE Geumhong											
E-11	최성록 CHOI Sungrok											
E-12	정기훈 JEONG Kihoon											
E-13	이수영 LEE Sooyoung											
E-14	연지 아트마드자자 (인도네시아) Angie ATMADJAJA (Indonesia)			리앗 리브니(이스라엘) Liat LIVNI(Israel)			실비아 빈클러 & 슈테판 커페르 (오스트리아 & 독일) Sylvia WINKLER & Stephan KÖEPERL(Austria, Germany)					
E-15	요르그 오베르그펠 (독일) Jörg OBERGFELL (Germany)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 (칠레) Jorge CABIESES- VALDES(Chile)			올리비아 발렌타인 (미국) Olivia VALENTINE (USA)					
E-16	차지랑 CHA Ji-ryang											
E-17	노기훈 Noh Gihun											
E-18	파리스 레가카스 (그리스) Paris LEGAKIS (Greece)			줄리앙 쿠틀레 (프랑스) Julien COIGNET (France)			인스턴트 커피 (캐나다) Instant Coffee (Canada)					
E-19	신재훈 SHIN Jaehoon											
E-20	전광표 JEON Kwangpyo						정진세 JEONG Jinse					
E-21	신승철 SHIN Seungryul											
E-22	옥인 콜렉티브 Okin Collective											
F-1	이대범 LEE Daebum											
F-4	김해진 KIM Haejin											
F-7	임정자 LIM Jeongja											
F-8				두시원(중국) DU Xiyun(China)			엘리사 토소니(이탈리아) Elisa TOSONI(Italy)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시	엠마 벨(영국) Emma BELL(UK)			김수미 KIM Soomi			이샤이 가르바즈(영국) Yishay GARBASZ(UK)					

KIM Kira

김기라

(1974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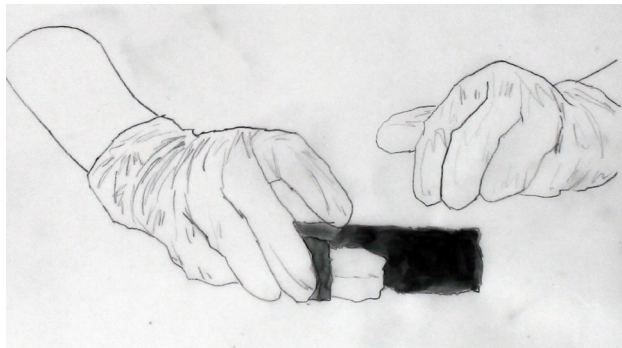
이념의 무게, 지난 과거 A Weight of ideology, Past history
15' _ HD Single channel video_ 2012-2013

김기라는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회화과, 동 대학원 조각과 석사를 졸업하고 런던 골드 스미스 컬리지에서 순수예술 석사, 언어와 문화연구이론 포스트 드플로마 과정을 마쳤다. 《신기루 궁전》(카운실 킹스린 아트센터, 영국, 2006), 《선전공화국》(대안공간루프, 서울, 2008), 《SUPER-ME-GA-FACTORY》(국제갤러리, 서울, 2009), 《공동선_모든 산에 오르라》(두산아트센터, 서울, 2012) 등에서 10회 개인전을 가졌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토탈미술관, Art Lab Alch Nagoya(일본), 난징트리엔날레(중국), ZKM(Karlsruhe, 독일), Kunstverein Bochum(독일), Nieuw Dakota project gallery(네덜란드), The Guild Mumbai(인도), Liverpool Biennial 2010(영국), Santral Istanbul(이스탄불) 등 국내외의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김기라는 자본주의 현대소비사회 안에서 개인이 처한 사회, 문화적 위치와 그와 상반되는 개인의 욕망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작업해 왔다. 그는 작품을 통해 주체적 고찰- 인간의 행위와 습관과도 관계하는- 주변의 불합리한 경계들, 사회적 불평등, 편견 등에서 오는 모순들을 탐구한다. 전시될 <이념의 무게>는 작가를 둘러싼 지역과 현상, 문화와 사회적 충돌과 대립의 사건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 등의 대립과 충돌들을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다. 단편적 시간의 묘사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KIM Se-Jin

김세진

(1971년 출생, 서울, 런던 거주 및 활동)



하나-세트 Hana-Set
1'1" _ Hand drawn looped animation, HD Video_ 2011

김세진은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강대에서 영화연출(M.A.)을, 런던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아츠에서 미디어 아트(M.F.A)과정을 마쳤다. 런던과 서울에서 작업 중이며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비롯한 국내외의 주요 전시의 참여와 다양한 국내외 레지던시에 참여 해왔다. <하나-세트>는 런던 시내 도처에 있는 일본식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가장 인기 있는 도시락 세트메뉴의 이름으로 일본어인 '花_Hana'는 '꽃'을 의미한다. 작가는 런던에 정착한 이후, 수개월 동안 서구적 사고방식의 합리적 노동의 분담과정,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 싼 이민노동자들에 의해 고도의 기술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고 생산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반복적인 노동의 형태를 그것과 가장 흡사한 제착형식인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묘사해 보고자 했다. 작가는 결국, 자본주의체제 아래 벌어지는 국가 간 노동의 교류로 인해 변화되는 삶의 현상과 그것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관계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KIM Wonhwa

김원화

(1980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DMC 우주센터 전망대 Space Center DMC Observatory
5' Interactive video_ 2012

김원화는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김원화, 현창민 듀오 그룹인 '김과현씨'로 활동하며 <바나나맛 우유> 시리즈를 진행하였고 2010년부터 개인 작업인 <발사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금호미술관 영아티스트전(2012)과 쿤스트독(2011)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2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김원화는 SF적 상상력을 동원해 도시의 건축물이나 변형된 로켓 이미지 등을 그리고 미래의 가상 이야기를 만든다. 작가는 한 세대의 패러다임의 위기와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 미래를 이끌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행해지는 위기 해결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DMC 우주센터 전망대>는 <발사대> 시리즈 중 하나로 한국 곳곳의 신도시들과 그곳에 지어질 초고층 타워를 SF적 상상력으로 재구성 한 작품이다. 집단적 욕구로 구현된 건축물과 그 내부의 파편화된 개체들을 구글어스(Google Earth)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보여준다. 로켓으로 변형된 도시 중심부의 초고층 타워는 일종의 미래의 토템(totem)이며 페티시즘의 대상으로 그 도시를 관망하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내부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싶은 관음증적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이러한 집단적 욕구와 개체적 욕망의 복합체인 현실의 도시를 SF적 판타지로 가상화함으로써 메타픽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KIM Jooho

김주호

(1949년 출생, 인천 거주 및 활동)



조오타! It's Good!
18x27x63cm_ 질구이 재벌_ 2012

김주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람사이》(관훈갤러리, 2012), 《생생풍경》(가회동 60, 2012) 개인전 및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해 왔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소마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는 사람과 일상의 풍경을 작가 특유의 사색과 여유로 재해석하여 입체 혹은 평면작업들을 일관되게 이끌어 왔다. 일상으로부터 시작된 작가의 사색적 자세는 우리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낸다.

작품 <조오타!>는 세상을 보는 호기심을, <세상을 보는 창>의 돋보기 형상은 대상을 투시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시선을 의미한다. 이런 독특한 작가의 조형적 인물 묘사는 돌고 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우리 삶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듯하다. 또한 질구이 작업으로는 붉은 색조의 온기를, 철판의 오리거나 붙이는 재료적 방법들을 통해 인물묘사를 극대화 시킨다.

Noh Gihun 노기훈

(1985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성형수술’ 시리즈 중 ‘미필적 고의’
‘Willful negligence’ among series ‘Aesthetic Surgery’
2’40” _ Single channel video_ 2012

노기훈은 중앙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진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The Unbound Archive》(아르코미술관, 2012), 《Uropean Month of Photography Berlin》(독일, 2012), 《Breda Photo International Photo Festival》(네덜란드 브레다, 2012) 등의 기획전시에 참여하였다. 작가는 과거의 기록, 사회 이슈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작업한다.

전시될 <Aesthetic Surgery성형수술> 시리즈는 5·18사건을 소재로 현대 한국사회의 단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Gauze Dressing거즈 드레싱>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인물사진 위에 현대적인 이미지 표피로 덮는 성형수술 행위를 한 후, 다시 작가 본인의 피를 뿌리고 드레싱하는 행위를 보여준다. 작가는 성형수술로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보기 싫은 과거’가 ‘보기 좋은 과거’로 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세대가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자 최선의 대응방식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한다. 또한 <Willful negligence미필적 고의>에서는 타인에 의해 당겨진 방아쇠가 여성의 이미지-희생자의 얼굴을 향할 때 순간 느껴지는 그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LEE Geumhong 리금홍

(1972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규방가사-각명기 Gyubanggasa-Gakmyounggi
(Story in the Woman's Quarters-Engraving Name Story)
15'3" _ Single channel video_ 2012

리금홍은 이화여자대학교와 동 대학원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일상의 틈을 사소하고 소심하게 관찰하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이를 작업에 투영시키는 커뮤니티 아트 베이스의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어를 전공한 바 있는 그녀는 중국문화와 동양고전을 종종 작업의 재료로 사용 하곤 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화교, 조선족 등 이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최근에는 자의적인 지칭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될 <규방가사-각명기>는 2012년 봄, 서울 창동에서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의 이름과 그 이야기를 모은 기록물이다. 작가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수지침도 맞고, 텔레비전을 보는 규방에 놀러가 말을 걸었다. 그리고 생활 저 깊은곳에 숨겨 두었던 ‘춘자씨’, ‘옥남씨’의 이름 이야기를 들으며 낙관석에 이름을 새겼다. 온라인 세상에 비껴서 있는 사람들 즉, 인터넷 정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이름서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또렷하게 품고 있었을 그들의 희망과 기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찬란한 기억, 그리고 현실과의 간극을 작품을 통해 대변하고자 한다.

PARK Gwangsoo

박광수

(1984년 출생, 강원도 거주 및 서울 활동)



먹구름 Dark Clouds
151x300cm_ Ink on paper_ 2012

박광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과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최근 2012년 인사미술공간에서 <Man on Pillow>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출품작인 <먹구름>과 <베개 위의 남자>는 지난 개인전에 선보였던 작업들 중 하나로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광수는 물리적인 현실에서 비껴나간 의식의 틈을 ‘공상’이라는 불확정적인 형식을 통해 메워가고 있다. 드로잉으로 남게 되는 공상의 결과물들은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되기도 하고, 대상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굴적거리는 기록으로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시작도 끝도 없는 “꿈”이라는 작품의 내용은 타인과 공유하기 힘든 단편적인 조각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실마리가 된다. 특히 그가 작업의 재료로 선택한 검은 펜은 현실에서 쉽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상념과 대상을 마주하는 찰나를 간절하게 쓰다듬고 있다.

PARK Hyemin

박혜민

(1984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Clearance Exchange
Dimensions variable_ Project_ 201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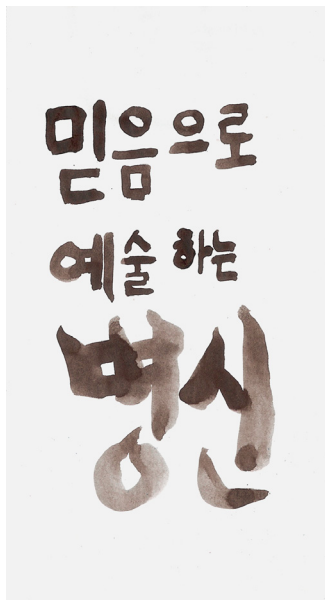
박혜민은 이화여대 회화·판화과를 졸업하고 런던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순수예술 석사를 마쳤다. <IKEA>(송은아트큐브, 서울, 2012), <London information centre>(목스페이스, 런던, 2012) 등 한국, 영국에서 4번의 개인전을 가졌고, <2012 부산비엔날레 특별전_두 개의 문>(부산문화회관, 부산, 2012), <움직이는 좌표>(스톤앤워터, 안양, 2012)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박혜민은 사회나 집단,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작업과정으로 발전시켜 하나의 시각예술로 이 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일상의 현상과 존재하는 구조들에 대한 관찰, 그 안에서 발견된 사회적 차이를 시각언어로 소통하며, 일상적 공간에 대한 허구적 재현과 허구와 실재를 넘나드는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Clearance Exchange>는 작가가 3년 동안 생활했던 런던을 떠나기 직전 진행한 프로젝트로, 작가가 한국에 가져가지 않을 물품 혹은 무게 제한으로 인해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을 관객들의 드로잉과 맞교환한 프로젝트이다. 관객들이 작가의 물건들 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고 그것을 직접 그려 작가에게 전달함으로써, 작가의 물건과 관객들의 드로잉은 교환된다. 작가 개인이 갖고있는 런던에서의 기억과 흔적이 묻어있는 물품들은 작가가 만난 사람들에게 의해 예술작품으로 환치되고 교환된다.

BAIK Intae

백인태

(1982년 출생, 인천 거주 및 활동)



로맨스(부분) Romance(part)
78x145mm_ 영수증 뒷면에 잉크_ 2011

백인태는 추계예대 판화과를 졸업하고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2009년 그 문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였으며 인천아트플랫폼, 서교실현예술센터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품작 <로맨스>는 작가의 수많은 일상의 생각들을 영수증에 드로잉하여 설치한 작품이다. 작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뒤 버리고 간 영수증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버려지고 마는 우리네 현실과 닮아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버려지는 영수증 뒷면에는 작가의 사회에 대한 불만,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 성공에 대한 집착 등 삶 속에서 무수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다양한 생각들이 여과 없이 옮겨져 있다. 작가는 서로 다른 내용의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나열된 여러 장의 메세지들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 경험들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기를 바란다.

Okin Collective

옥인 콜렉티브

(김화용, 이정민, 진시우)



옥인콜렉티브 프리-오피스 Okin Collective Pre-office
Dimensions variable_ Mixed media_ 2013

옥인 콜렉티브는 첫 프로젝트의 장소이자 강제철거로 사라진 종로구 옥인아파트의 지명을 딴 작가그룹이다. 이후 주변에서 쉽사리 발견되는 무수한 ‘옥인’을 기억하며, 척박한 도시 공간 속의 연구와 놀이, 예술과 사회의 관계, 예술과 향유자의 위치와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단독 전시인 《옥인 오픈 사이트》(옥인아파트, 2010), 《콘크리트 아일랜드》(테이크아웃드로잉, 2010) 외에 《랜덤 액세스》(백남준아트센터, 2010), 《여론의 공론장》(대안공간루프 2010),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부산시립미술관 2011), 《파동, The Forces Behind》(두산갤러리 뉴욕, 2012), 《Open Hangar》(스페인, 2012), 《Truth is Concrete》(오스트리아, 2012) 등 국내외 전시와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옥인 콜렉티브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 STUDIO+82(<http://okin.cc>)를 운영 중이다.

2013년 인천아트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된 옥인 콜렉티브는 프리뷰 전시 기간 동안 ‘프리-오피스’를 오픈한다. ‘프리-오피스’는 그간 옥인 콜렉티브의 인쇄물, 단행본 등의 아카이브와 옥인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 [STUDIO+82]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의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간이 사무실이다. 이 작업은 전시장에 설치된 소규모의 플랫폼으로 가능하며, 옥인 콜렉티브가 수행하는 사전 작업의 과정을 ‘전시’하는 동시에 공식화된 문서나 매체에서 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일시적인 회합의 장소가 된다.

LEE Sooyoung 이수영

(1967년 출생, 경기도 고양 거주 및 서울 활동)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 Marine Corps and the Ghost in Yeonpyeong-do
1'38" _ Video_ 2012

이수영은 1993년 서울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2002년 뉴욕시립대 퀸즈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죽음 항해자》(고양시 벽제 화장터, 구제역 매물지,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시, 2011), 《SAJU 사주(四柱)》(Casa Asia, 바르셀로나, 스페인, 2010), 《습진濕疹의 기억》(미술공간 現, 서울, 2008), 《기록-증명》(인사미술공간, 서울, 2006) 4번의 개인전을 했고, 《하늘을 보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 2012), 《노마딕 리포트 2012》(간, 코 미술관, 서울, 2012), 《Liquid Moon》(Ausstellungshalle Hawerkamp, 뮌스터, 독일, 2011), 《사거리》(French Institute, 바르셀로나, 2010)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품 <연평도 해병대와 물귀신>은 작가가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물귀신이 되기 위해 배를 타고 연평도에 간 퍼포먼스 기록 작업이다.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염원이라는 다소 무거운 현실적 소망을 가볍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보고자 했던 작가는 물귀신이 되어 연평도 주민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죽어간 희생자들과 상흔의 역사를 어루만지는 제의지만 엄숙한 의례보다 진중했던 '즐거움'으로 풀어낸 의식이었다.

LEE Ju-ri 이주리

(1986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두개의 지류 Two Tributaries
112x162cm_ Acrylic on canvas_ 2012

이주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회화 작가로 최근 《다크 판타지》(사루비아다방, 2012)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주로 다들 어지러운 날것의 선, 무의식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형상들로 현실의 부조리한 세계관과 충돌의 무의미함, 삭막한 인간성에 대한 은유적 의견들을 작품에 투영한다. 그녀의 작품에 공사장과 항구 등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장소가 무의식의 요소들이 자리하기 쉬운 상상적인 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판타지적 공간에서 산업화된 풍경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 의도한 작업은 아니며 산업화의 패러다임과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합일되는 일원론적인 신화적 패러다임의 충돌에서 오는 대립된 지점의 갈등을 만화적인 코믹함으로 풀어낸 것이다.

LEEHAIMINNSUN

이해민선

(1977년 출생, 경기도 양주 거주 및 서울 활동)



육지는 금방 차가워졌고 The land has been cold soon
180x320cm_ Acrylic on canvas_ 2012

이해민선은 용인대 회화학과 서양화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안 유명한 작가의 개인전》(갤러리 창, 2004)를 시작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아트스페이스 휴, 2005), 《임대공간 변이체》(갤러리 킹, 2004) 등 다수의 개인전과 《사이의 변칙》(사루비아다방, 2012), 《안녕 없는 생활들, 모험들》(부산시립미술관, 2012), 《해피 윈도우》(아트센터 나비, 2011), 《젊은 모색》(국립현대미술관, 2006)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 하였다. 도시의 도면자체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바라보는 건축도면의 펜 드로잉으로 데뷔한 이해민선은 인공과 자연,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들에 대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들의 관계를 극대화 시키는 회화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육지는 금방 차가워 졌고>(2012)는 거대한 산, 혹은 깎아지른 공사현장 같기도 한 주변의 풍경에 비닐, 나무 등이 한 화면에 놓이게 되면서 만들어내는 필연적 상황과 각각의 사물이 접속하는 순간을 화면에 담은 것이다. 이것을 통해 서로의 특수성을 받아들이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JEONG Kihoon

정기훈

(1980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마킹 Marking
53x80cm_ Digital print_ 2007

정기훈은 성균관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2006년 인사미술공간을 시작으로, 2007년 대안공간 풀, 2009년 금호미술관, 2011년 아트라운지 디방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아트스페이스 풀, 평화박물관, 송은아트스페이스 등 그룹전에 참여했다. 작품 <marking>은 2007년 첫 개인전에 선보인 작품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작가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한아름의 물리적 무게의 사물들을 여러 제스처를 통해 개입시켜 만들어지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기록한 작업이다. 현대사회의 제도적 규칙과 규범, 그것이 작용되는 방식에 관심이 있는 작가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상징적 공공기호에 사적인 행위들을 상충시켜 건조한 사회적 규범에 소소한 균열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허허로운 몸놀림을 통하여 경쟁적 기능사회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JUNG Jihyun

정지현

(1983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공사장 07 Construction Site 07
120x150cm_ Pigment print_ 2012

정지현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진학과를 수료하였다. 《Special Project Fotografisch Talent Uit Korea, Breda International Photo Festival》(네덜란드, 2012), 《In Transit, Uropean Month of Photography Berlin》(독일, 2012), 《공장미술제-선셋 장항 페스티벌》(장항, 2012)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고, 사진비평상과 ASYAAF PRIZE를 수상하였다. 정지현은 도시화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공간을 소재로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주의와 신화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품 <공사장>은 분당 일대의 판교 신도시, 인천의 청라 신도시, 서울의 시내 택지 개발지구의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작가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을 자연의 파괴와 현대인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창조의 충돌지점으로 바라보고 창조적 설치와 발견을 통하여 이성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공사장을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CHA Ji-ryang

차지량

(1983년 출생, 인천 거주 및 서울 활동)



미드나잇 퍼레이드 Midnight Parade
20' _ Participation project, multi-channel video_ 2010

차지량은 '동시대 시스템의 고립을 겨냥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뉴홈》(2012), 《일시적 기업》(2011), 《세대독립클럽》(2010), 《이동을 위한 회화》(2008)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 미디어아트, 실험예술, 영화제 등에서 수상 및 참여하였다. <미드나잇 퍼레이드 MIDNIGHT PARADE>는 온오프라인 공지를 통해 참여대상을 만나 새벽 0시, 도심의 유흥지역과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예기치 않은 공통의 목표를 갖게 된 하나의 커뮤니티는 비활성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작가는 시스템화 되어있는 '도심'이라는 실제 공간에서 비밀상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동'과 '머무름'을 통해 성장하는 세대의 확장과정을 실험한다.

CHOI Sungrok

최성록

(1978년 출생, 경기도 고양 거주 및 서울 활동)



작전명 두더지 Operation Mole
13' _ HD 2D Animation_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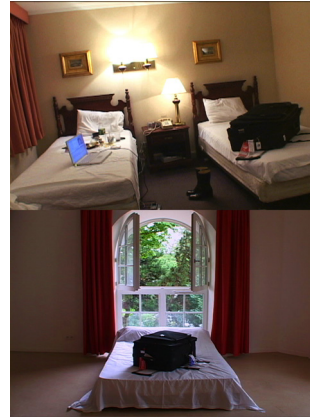
최성록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전공 석사과정을 마쳤다. 2006년 아트스페이스 휴 기획공모 개인전, 2011년 피츠버그 아트센터 기획공모 개인전을 가졌고 난지창작스튜디오 1기 작가로 활동하였다. 2011년 뉴욕 소재 AHL Foundation 주최 제8회 시각예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 카네기멜론 뮤지엄 Two-Minute Festival, 2012 부산비디오아트페스티벌, 오프엔프리 국제실험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상영하였다.

<Operation Mole 작전명 두더지>는 8개의 애니메이션 장면으로 이뤄진 멀티채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작업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두더지 탱크, 조종사의 임무와 사랑을 묘사한 지하 여행 이야기를 줄거리로 다루며 조종사의 시간 초월 지하 여행을 통해 바라보는 역사적 사건들, 풍경을 묘사한다. 8개의 장면이 한 개의 파노라마 풍경이 되고 조종사와 탱크의 지하여행 모습을 4개의 구조적 해석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작가의 주관적 기억과 연결된 정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이야기 구조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담겨있다.

HAM Kyungah

함경아

(1966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One day before exhibition
1'44" _ Single channel DVD_ 2005

함경아는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에서 페인팅 과정 스쿨 오브 비주얼아트로 편입하여 순수예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욕망과 마취>(아트선재, 2009), <어떤 게임>(쌔지 스페이스, 2008)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리버 비엔날레>(영국, 2012), <Unseen, 광저우 트리엔날레>(광동미술관, 중국, 2012), <배움의 정원>(부산비엔날레, 2012), <싱가폴 비엔날레>(싱가폴 미술관, 2011) 등 국내외를 무대로 다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함경아의 예술적 실천방식은 개인의 차원으로 투영된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사회적 가치관과 시스템, 윤리와 법망과의 간극을 발견하고 이를 시각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작품 <One Day Before Exhibition>은 2004년도 뉴욕 전시에 초대되었을 당시 전시 기획자의 과도한 야심으로 비롯된 전시 기획의 과부하와 회의스런 실상이 모티프가 되어 만들어진 싱글채널 비디오 작업이다. 작가는 초대되었던 작품이 전시 주제나 상황에 맞지 않을 만큼 무모한 기획으로 느껴졌고 작가로서 회의감마저 들게 되었으며, 작품을 통해 미술계의 경쟁적 전시기획의 구도에서 벗어나고픈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오프닝 하루 전날 촬영받은 호텔방에서 촬영, 편집, Two channel DVD제작까지 초스피드 과정으로 작품을 끝냈고 다음날 무사히 전시되었다. 전시차 여행을 할 때마다 늘상 갖고 다니던 노트북과 여행용 가방이 등장하고 작가는 결국 가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행위를 보여준다. 이는 과열 경쟁의 시스템 앞에서 심각하다면 심각한, 극도로 불안하고 모호한 작가의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모른다. 당시에는 2채널 비디오로 제작하였으나 이후 파리 레지던시에서의 촬영이 합쳐져 싱글 채널 비디오로 완성되었다.

Liat LIVNI 리앗 리브니

(1979년 이스라엘 출생, 이스라엘 거주 및 활동)



■ Reflection on Taiwan Solo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Kuandu Museum of Fine Arts Taipei_ 2012

이스라엘 작가 리앗 리브니는 이스라엘 Besalel Academy of fine art and design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Reflections on Taiwan》(The Kuandu Museum of Fine Arts, 타이완, 2012), 《Cut in the Landscape》(The Rehovot Municipal Art Gallery, 이스라엘, 2009)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09년 뉴욕 Omi Artist Residency, 2012년 대만 The Kuandu Museum of Fine Arts, 타이완 Kuandu Museum of Fine Arts의 레지던시에 참여한 바 있으며, The Israel Museum, Art Omi, Mino paper art Museum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녀는 주로 나무판넬, 종이접시 등과 같은 일상제품, 각기 다른 오브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각하고 붙인다. 이는 자연과 도시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자연물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찾고자 함이다. 그녀의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겹겹이 쌓인 레이어들은 조형적, 문화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며 다층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이미지들을 통해 현실과 실제 대상에서 탈피한 새로운 상징언어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Sylvia WINKLER & Stephan KÖEPERL 실비아 빈클러 & 슈테판 커페르

(실비아 빈클러-1969년 오스트리아 출생, 슈테판 커페르-1966년 독일 출생)



Alexandra Open
2'_ video_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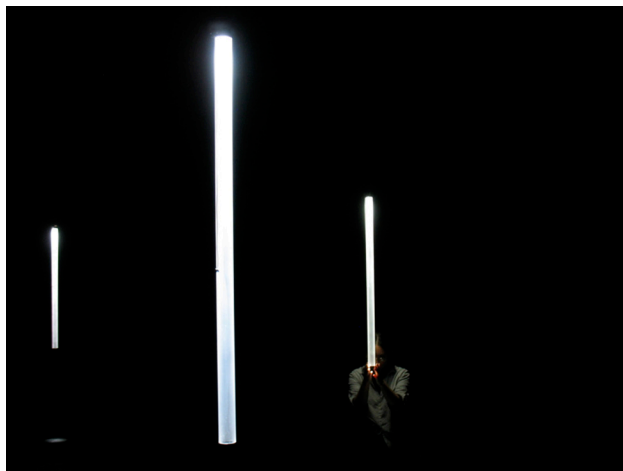
실비아 빈클러와 슈테판 커페르는 독일 미술국립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고 1997년부터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도시구조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맞춘 장소-상황 특정적 예술 활동을 진행 해 오고 있다. 그들은 다양한 장소와 공동체들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작업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미지나 상황을 만들어 낸다. 실비아와 슈테판은 특히 단순한 외관의 기본구조와 매커니즘에 관심을 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하는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은 장소와 상황의 잠재성을 찾고 그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작품<Alexandra Open>은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북 벨파스트(North belfast)에 있는 공원의 울타리('Peace line')를 배경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 'Peace line'은 천주교와 개신교 청소년 조직 간의 폭동을 막기 위해 생긴 장벽이며 반복되는 사소한 충돌로 인하여 두 종교적 갈등을 해결할 기회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어느 날 그들은 이 장벽에서 배드민턴을 쳤다.

Angie ATMADJAJA

앤지 아트마드자자

(1976년 인도네시아 출생, 영국 거주 및 활동)



■ Intrinsic
Installation_ Site dependent_ 2010

앤지 아트마드자자는 1998년 영국 트리니티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2006년 영국요크대학교에서 음악기술석사, 동대학원에서 사운드설치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영국 Chinese Arts Centre에서 《Intrinsic & Structure》개인전을 가졌으며, 제4회 광주우 트리엔날레(중국, 2012), 《Actuate My Void》(Pheonix Art Centre, UK, 2011), 《Bikkuri》(Aomori Contemporary Art Centre, 일본, 2010)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 하였다.

그녀는 음향을 통한 심리적 현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최소의 오디오와 영상, 설치물을 추상적으로 설치한다. 사인파, 정제된 소리와 같은 명확하고 순수한 사운드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소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순수한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관객들은 한가지의 깊은 사운드에 집중함으로써 소리를 귀에서 느끼는 감각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흐르는 진동과 전율을 체험할 수 있다. 그녀의 작품은 공간 내에서 제공되는 소리 정보에 관계된 관찰자의 고유 감각의 반응이자 자기수용 감각에 대한 개인적 독백이다.

Olivia VALENTINE

올리비아 발렌타인

(1979년 미국 출생, 터키 거주 및 활동)



■ Guest Room at the Drake Studio-Process View
Mixed media_ Site dependent_ 2012

미국출생의 올리비아 발렌타인은 현재 터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섬유예술 설치작가로 1999년 뉴욕 Cooper Union대학 건축학과와 2002년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사진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섬유예술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 Second City, with Firat Erdim》(Flash Atolye, 터키, 2012), 《1:1》(Happy Collaborationists, 시카고, 2012) 등의 개인전을 가졌고, The Whitworth Art Gallery, Knoxville Museum of Art, RISD Archive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주로 시카고에서 전시를 해오던 그녀는 현재 터키 'Babayan Culture House' 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섬유를 소재로 한 설치 작업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올리비아는 최근 여러 가닥의 실들을 매듭짓고 바느질하거나 오려내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섬유건축물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작업들은 섬유와 건축 그리고 구조와 해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는다. 그녀의 작업들은 건축물의 외관, 건물의 독특한 역사를 재정렬함으로써 구조적인 힘의 반전과 기능, 지각들을 전복시킨다. 특히, 작품 <Guest Room at the dark>에서 섬유로 만들어진 창문은 내부의 사적공간과 외부의 공적공간을 매개시키며 내·외부 세계 사이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Jörg OBERGFELL 요르그 오베르그펠

(1976년 독일 출생, 독일 거주 및 활동)



■ UP
3'11" _ Video_ 2010

독일작가 요르그 오베르그펠은 2006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Academy of Fine Arts를 졸업하고 2007년 영국 골드스미스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Tout est construit》(CEAAC, 독일, 2011), 《Second nature》(Gallery Muro, 스위스, 2010)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런던, 파리, 뉴욕, 도쿄 등에 머무르며 작업 해 왔으며, 2007년 국립창동미술스튜디오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국내에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작가는 거리에서 수집한 인쇄 매체들, 플라스틱 병, 과일 상자, 옷가지들과 같은 도시에서 생산, 소비되어 순환하는 오브제들을 가지고 입체 조형물을 제작하거나 도심 곳곳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에 변화를 가하는 설치를 시도한다. 이런 그의 작업들은 주로 매체의 과잉으로 압도된 거대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풍경을 주제로 담아내며 자연과 사람, 도시 건설 구조물 사이의 양자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금 사유하게 하는 단서로 작용한다.

Instant Coffee 인스턴트 커피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에 기반을 둔 4명의 프로젝트 그룹)



■ Bright Future
Instant Coffee produced four public art works

인스턴트 커피는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를 주 무대로 활동하며 예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하는(service-oriented) 4명의 프로젝트 그룹이다. 그들은 설치와 이벤트 기반의 예술 활동들을 통해 공공장소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그 장소 안의 고립된 스튜디오의 아이디어와 재료, 행위들을 탐구한다. 인스턴트 커피는 주로 건축 시설,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데, 그것들은 공식적인 강의 및 비공식적인 수집 과정과 워크숍을 통해 기획된 이벤트 시리즈를 위한 장소가 된다. 그들은 이와 같이 사회와 미학을 조화시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많은 관객들과 관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일을 한다. 그들은 수많은 공공아트 프로젝트의 제작활동에 참여하여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Jorge CABIESES-VALDES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

(1978년 칠레 출생, 칠레와 그리스 거주 및 활동)



The Miniature Series

4'23" _ HDV Video_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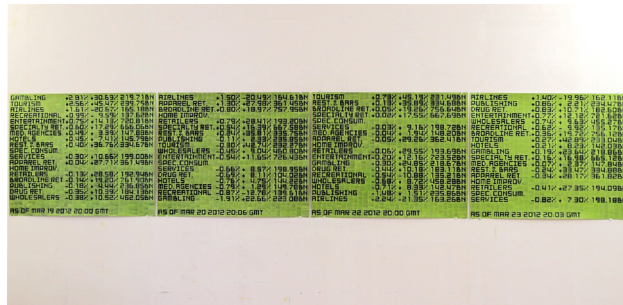
조지 카비에세스 발데스는 칠레의 대학교에서 시각예술 학사 및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칠레와 그리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최근 《The Miniature》(Kaapecin Galleria, HIAP, 핀란드, 2012), 《Violencia Pasiva》(Galeria D21, 칠레, 2012) 등의 개인전을 가졌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2011년에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HIAP(Helsinki International Art Program)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업은 산업디자인, 중산층, 로코코 미학과 잔인함 등과 같은 개념에 관심을 두고 일상생활과 우리 주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묵시적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2009부터 2012년에 작업한 <미니어처 시리즈>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진행해 온 시리즈 작업이다. 이 영상은 견고하고 균일한 색채를 구현하기 위하여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작가는 카메라 앞에서 세 가지의 대안적인 효과가 결합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또한 로코코 미학(18세기 가구와 도자기), 재앙과 관련된 엇갈린 형식의 개념을 작품 속에 결합하였다.

Julien COIGNET

줄리앙 쿠아네

(1979년 프랑스 출생, 프랑스 거주 및 활동)



■ Consumer services

50x230cm_ Acrylic painting on paper_ 2012

줄리앙 쿠아네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of Dijon)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주로 회화와 그래픽을 활용한 일러스트작업을 한다. 그의 작품은 풍경, 건축, 도시 특히 인구가 밀집된 환경을 소재로 하며 현대 사회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지도와 네트워크망, 컴퓨터 이미지, 데이터들을 드로잉 하였으며 실제 도시의 환경과 모습, 또 그것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2011년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거대한 도시환경의 다양한 모습에 인상을 받아 지도를 이용한 작업을 진행 한 바 있으며 이 작업을 올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도시화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SHIN Seungryul 신승렬

(1980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비지터 Visitor

Performance video documentation, Installation_ 2013

신승렬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미술과를 졸업했으며, 《Musical Visitor》(Lupert Brooke 연출 서충식, 2012), 《Yellow Moon》(David Greig 연출 Tony Graham, 2012) 등 다수의 작품을 무대디자인 했고 《Re-vival》(Texas Go-center, 미국, 2011) 전시기획 및 공간디자인에 참여하였다.

<뮤지컬 비지터>는 극작가 루퍼트 브르크의 '리투아니아' 작품으로 가난한 한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한 손님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적 사건을 블랙 코미디 뮤지컬형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며, <트로이의 여인들>은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에 위치한 서대문 형무소를 극적 공간으로 채택하여 그 장소가 가지는 상징성을 더욱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형무소에 서려있는 한 맺힌 사연들을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에 투영시켜 정제된 언어와 빛과 소리, 움직임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옥사 내에 시적(詩的)울림을 극대화 시켰다.

SHIN Jaehoon

신재훈

(1977년 출생, 인천 거주 및 활동)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 Who in the world can believe?
60' _ Performance video documentation_ 2012

신재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출을 전공했고 ‘극단 작은방’을 창단하여 활동 중이다. 2009년 데뷔 작품인 <고부의 끈>이 Shanghai Theatre Academy에서 진행된 《the 5th International Experimental Festival》 및 《Asian Pacific Expo of Theatre》와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에 초청되었고, 2010년 연출 작품인 <극야(極夜)>(이명연 작)가 CJ azit 창작예술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2011년 AYA F 연극분야에 선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되었고 2012년에는 직접 쓰고 연출한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연출 작품인 <바투>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음악극어워드 인기음악극상을 수상하고 2012년 창작하고 대본 독해를 한 <정서진별곡>은 입주기간동안 실제 무대화를 전제로 그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니>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의 며느리가 된 이주여성의 죽음을 다루고 있으며 며느리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들의 이기적인 선택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의미에 숨겨진 파괴의 잔인함을 고발하고자 한다.

JEON Kwangpyo

전광표

(1974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고백 Goback
10' _ Sound performance_ 2013

전광표는 공연예술분야에서 음향감독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에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에 입학하여 사운드디자인을 전공하였다. 주로 오감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심청을 기다리며>(경기도미술관 야외테라스, 2012) 퍼포먼스에서는 판소리와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서 판소리와 목소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고,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스페이스 풀, 2012)에서는 목소리의 겹침과 해체를 통해 배우의 고백을 극대화 시켰다.

<고백(Goback)>(동탄아트스페이스, 2013) 작업은 두 명의 배우와 즉흥으로 섭외한 관객 한사람이 미리 준비된 대화체 텍스트를 주고받는 것을 실시간으로 녹음을 한 후, 다시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상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목소리와 대화를 통해 현대인들의 대화, 소통의 부재를 표현하였고 말소리의 기의와 기표를 분해하고 겹침으로써 사운드를 만들었다.

JEONG Jinse

정진세

(1980년 출생, 서울 거주 및 활동)



올모스트, 상수 + 러브 이벤츄얼리 Almost Sangsu + Love Eventually
Performance video documentation_ 2012

정진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연극이론 및 서사창작을 전공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동시대 재일한인 연극 연구”(2012)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모든 날의 문제 - 드망>으로 젊은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 ‘극단문(theater Moon)’을 창단하여 매년 새로운 작품을 쓰고 공연을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2인극<디아제팜, 삼촌>, 인형극<나의 열 살>, 연극<날나리들>, 음악극<삼마미아>, 판소리극<심난가> 등이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안공간에서 모노드라마<러브 이벤츄얼리>, 야외극<올모스트 석관>, <올모스트 상수> 등을 선보였다.

<올모스트 상수>(서교예술실험센터, 2012)는 아마추어 배우들과 공연한 작품으로 ‘홍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탕으로 구성한 에피소드이며, <러브 이벤츄얼리>(한국예술종합학교, 2009)는 평범한 여대생 ‘신애’가 부자인 ‘그’와 만나 벌어지는 다양한 사랑 이벤트를 바탕으로 한 모노드라마이다. 그는 한국 ‘희곡’이 갖고 있는 근대적 연극관에서 벗어나 계몽 없는 연극, 규모 없는 연극, 소외 없는 연극을 지향하며,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도록 애쓰고 있다.

Paris LEGAKIS

파리스 레가키스

(1981년 그리스 출생, 그리스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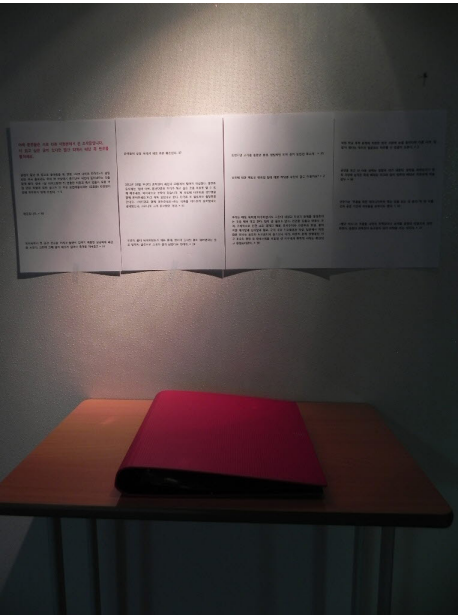
Linenality
6'24" _ Performance video_ 2011

그리스 출신 파리스 레가키스는 Athens School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Bauhaus-University Weimar(2010-12)에서 ‘공공예술과 새로운 예술전략’이라는 연구주제를 통해 석사학위를 받은 연극, 무용 퍼포먼스 작가이다. 그는 원근법, 퍼포먼스, 건축,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들을 통합시키며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에 주목한다.

<BY TRAVERSE OF SOCIAL BORDERS-MY HOME IS OPEN FOR YOU>는 오늘날의 공공장소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고유한 의미를 잃어가면서 ‘지식 공공장소’로 대체 되었고, 그로인해 개인은 공공장소로 과대평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LINENALITY>는 그리스의 위기에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그가 양방향 거리의 중앙선을 걷는 퍼포먼스이다. 그것은 상황에 동의한 위험한 상태와 이행을 상징하고 두 가지 상황을 통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그는 현재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며, 사회적인 경계와 일상생활 속 과장된 어조들을 연구한다.

KIM Haejin
김해진

(1979년 출생, 경기도 부천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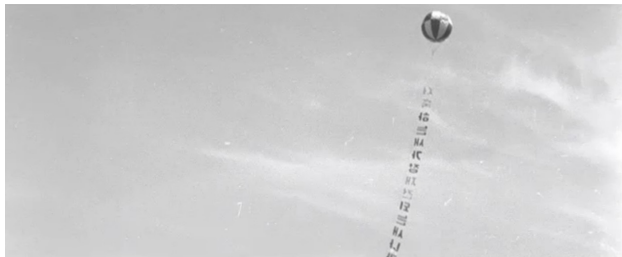


그 비평가의 시선
도큐먼트 아카이브 자료_ 2007-2013

김해진은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소녀들이 사라져간다」로 2011년 제4회 플랫폼공연비평상에 당선됐으며, 2012년에는 「여신의 별빛과 안드로이드의 불빛」, 「헤다 가블러가 피아노를 치던 그 때」, 「‘중무장’한 대화가 ‘영망’이 된다」, 「해방/비해방의 구별이 없는 것」, 「극장에서 나온 후」등 11편의 비평 에세이를 써서 아시아문화비평지 플랫폼과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에 기고했다. 현재 한여름 밤에 펼쳐지는 모녀의 이야기를 화곡으로 쓰고 있다. 「그 비평가의 시선」의 각 문단은 김해진이 2012년에 쓴 여러 비평문에서 발췌한 조각들이며, 빨간 바인더에는 김해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쓴 비평 에세이 및 기사가 담겨 있다.

LEE Daebum 이대범

(1974년 출생, 경기도 부천 거주 및 서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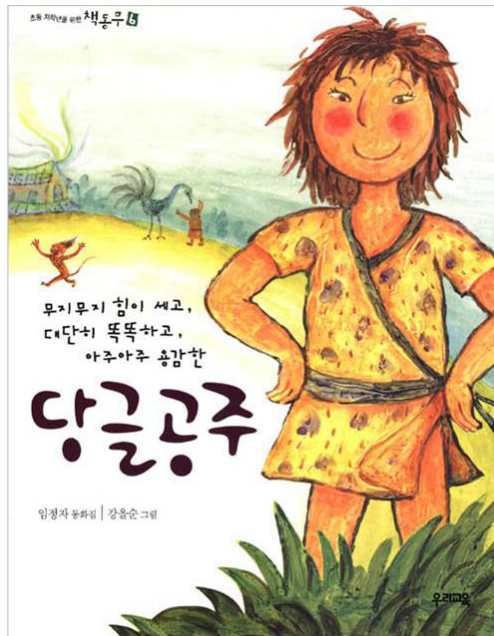
월급쟁이 Salaried people
Site dependent_ Digital print_ 2013

이대범은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이론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문학평론가 김현의 글을 통해 글쓰기의 즐거움을 깨달았으며, 2006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 「낮선 시간에서 끌어 올린 역사라는 천 : 조덕현의 발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같은 해 문화예술위원회 '2006 아르고 독립 신진 큐레이터 공모'에 당선되었다. 현재 미술 관련 글을 쓰거나, 강의 및 전시기획을 하고, 가끔 작업도 한다. 소규모 출판모임인 'roundabout'의 일원이며, 미술 무크지 'debut'의 편집위원이다.

<roundabout 전시 프로젝트>는 작업과 작업, 개인전과 개인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괴리를 공유하고자 하며, 이때 기획자는 '대화자' 노릇을 자처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또한 <roundabout 소설 프로젝트>는 소설을 매개로 하여 미술 창작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작업이며, <월급쟁이>는 1962년 이봉래 감독의 동명 영화의 한 장면으로 써 영화의 서사에 과잉적으로 개입하는 혁명의 언어를 수집하는 연작의 첫 번째 작업이다.

LIM Jeongja 임정자

(1966년 출생, 경기도 부천 거주 및 서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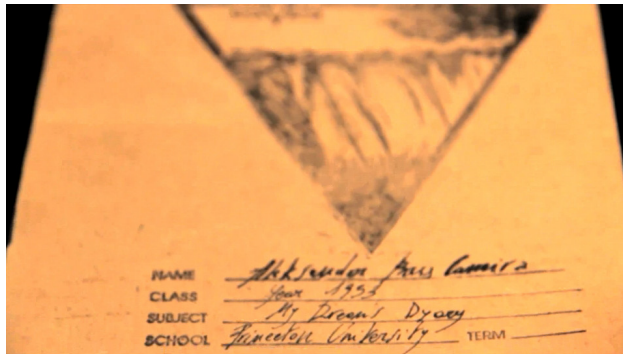
무지무지 힘이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동화집
Very very strong, Very clever and Very very Brave Danggeul Princess,
A collection of fairy tales
우리교육_ 2002

임정자는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1998년 등단하여 2001년 단편동화집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가』 출간을 시작으로,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물이, 길 떠나는 아이』, 『흰산 도로랑』, 『마지막 수수께끼』, 『1만년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주는 돌 이야기』 등 19권의 어린이 책을 냈다. 흥역에 걸린 아이를 소재로 한 『무지무지 힘이 세고 대단히 똑똑하고 아주아주 용감한 당글공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기도 하지만, 자기 앞에 놓인 시련은 스스로 당당히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Elisa TOSONI

엘리사 토소니

(1981년 이탈리아 출생, 이탈리아, 스웨덴 거주 및 활동)



Aleksander Prus Caneira, Quantum Physics and the Portals of the Unconscious
23'46" _ HD video_ 2011

엘리사 토소니는 East London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Stockholm University 대학원에서 Curating Art with management and Law과정을 공부 중이다. 그녀는 큐레이터 모임인 'Alois'와 프로젝트 공간인 Elevator Gallery 창립멤버로 미술 비평가이자 소설가, 요리사, 이탈리아인 큐레이터이다. 최근에는 《Dreams' Time Capsule》(작가: Eva Frapiccini, Arkitekturmuseet, Botkyrka Konsthall(스톡홀름), 타운하우스갤러리(카이로) 2012), 《the public discussion W0°6' E18°06'》(작가: Anastasios Logothetis, Mariana Calò, Francisco Queimadela in Glasburen, (스톡홀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1년 간 nkd(Dale, 노르웨이)에서 큐레이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엘리사 토소니의 주된 관심사는 진실과 거짓 사이의 관계, 세속적인 권력, 예술적 노동활동의 조건들이다. <Aleksander Prus Caneira, Quantum Physics and the Portals of the Unconscious>는 1992년 토리노에서 행방불명된 과학자 Aleksander Prus Caneira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DU Xiyun

두시윈

(1978년 중국 출생, 중국 거주 및 활동)



■ Wang Jianwei's Exhibition view《Respond to Recovery of Society reality》

두시윈은 상하이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였고, 심천 Fine art academy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중국현대미술 비평분야에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심천과 청도, 북경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였다. 또한 2007년 Chongqing Municipal Outstanding MA Graduation Thesis Award 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정치 상황이나 인권 같은 사회적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중국현대미술이 점점 더 상업화 되어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다. 인터넷아트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대미술을 비교하고 큐레이팅 시스템에 대해 비교 연구할 계획이다.

KIM Soomi
김수미

(1979년 출생, 일본 거주 및 활동)



■ Number-self portrait
사진 7장, 외국인 등록번호_2003

김수미는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났으며 교토 세이카대학에서 조형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예술연구과를 졸업하였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일본, 2011), 교류 프로젝트《신·향촌 Bank Art LifeIII》(요코하마, 일본, 2011), 《어디에서라도》(히로시마 현대 미술관, 일본, 2010) 등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그녀의 작품은 그녀가 이민 '3세'라는 작가 개인의 환경과 성장배경을 투영한다. 보통 대립하는 세계가 아닌, 그 어느 쪽도 아닌 '사이의 세계'를 바라보며(실제로 보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독창적 세계와 개인의 존재를 찾아 나선다. 집단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호의 이미지와 개념들을 주요 모티브로 사용하여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

「..... 어느 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38선이 사라지면 너는 어디에 있어?'라고 물어왔다. 나는, '변함없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38선이 없어지면, 세계가 38선이 되니까.' 라고 대답했다.

-제1화<38선의 안>(2011)에서 발췌-

Emma BELL

엠마 벨

(1982년 영국 출생, 영국 거주 및 활동)



■ 16th Century Wall Weaver
Mixed media

엠마 벨은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최근 《The Hives of Lepi Spomini》(K18 Gallery, 슬로베니아, 2012), 《Newcastle Fashion Week》(As You Like It, Newcastle, 영국, 2012)에서 개인전을, 《Guestroom Maribor Retrospective》(Velika Kavarna, Maribor, 슬로베니아, 2012), 《Call me Human Torch》(K18 Gallery, Maribor, 슬로베니아, 2012)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엠마 벨은 시각예술과 디자인작업을 공부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을 추구하고 작품의 주요 테마에 접목한다. 특히 그녀는 문화적 정체성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예술 의상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패션의 상업적 제약과 예술을 연결하려 한다. 또한 공예기술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물리적인 예술 작품의 개발을 통해 활기차고 다채로운 실험표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한다.

Yishay GARBASZ

이샤이 가르비즈

(1970년 영국 출생, 영국, 독일 거주 및 활동)



■ Becoming
Mixed media_ Installtion view_ 2010

이샤이 가르비즈는 바드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였고 그녀의 정체성, 트라우마, 기억들을 작업의 주요한 모티브로 다루며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 한다. 2010년 부산비엔날레에 참여하여 국내에 소개된 바 있는 <Becoming>은 실제 본인이 2008년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1년 전부터 1년 후 까지 매 주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몸이 겪는 미세한 차이를 기록하여 보여주는데, 사진은 구성요소가 되고 그 의미는 축적된다. 1929년 독일 태생인 그의 어머니는 나치를 피해 네덜란드로 달아나지만 웨스트보르크에 수감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거쳐 테레지엔슈타트 수용소 등에 수감되었으며, 베르겐벨젠 수용소에서 영국군에 의해 풀려난다. <In My Mother's Footsteps>는 그가 어머니가 지냈던 수용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어머니의 행보를 추적한 기록 사진작업으로, 개인사를 넘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발행인 관장 이승미
발행일 2013년 3월
발행처 인천아트플랫폼

■ 표시가 있는 작품은 해당작가의 홍보이미지이며, 전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The works marked with the ■ symbol, are the corresponding artists' images used only for promotional purposes. At the exhibition, only the artist's portfolio will be available to enjoy.

©인천아트플랫폼, 2013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Korea 2013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individual copyright holders and the Incheon Art Platform.

인천아트플랫폼

400-021 인천 중구 제물랑로 218번길 3
T. 032-760-1000 F. 032-760-1010

INCHEON ART PLATFORM

218-3 Jemullryang-ro
Jung-gu, Incheon, S.Korea 400-021
T.+82-32-760-1000 F.+82-32-760-1010

www.inartplatform.kr